

# “기억해야 할 오월”...한마음 한뜻으로 내딛은 발걸음



2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5·18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김경남 전남매일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채은지 광주시의회부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양부남·전진숙·민형배·이개호 국회의원, 김병태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 딸·손녀 손잡고 5.18km ‘완주 레이스’ ...“가족간 친목 쌓였어요”

최고령 참가자 최학자씨 가족 완주  
사위·딸·손녀, 마라톤 ‘의기투합’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25회 5·18마라톤대회 최고령 참가자 가족이 전원 완주,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간 단합과 건강을 행하는 1석3조의 시간을 가졌다.

최고령 참가자는 1944년생인 최학자씨. 이번 대회는 최씨를 비롯해 사위 류상선씨(61)와 두 딸 정미경씨(57)·미영(52), 손녀 류민정씨(27)까지 5명이 의기투합, 5·18민주묘지 일원을 달렸다.

류상선씨와 정미경씨 부부는 이날 10km 코스를, 최학자씨와 정미영, 류민정씨는 5.18km 코스를 달려 5명 모두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다.

류상선씨는 체육교사 생활만 30년을 한 교직자로 현재 별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마라톤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마라톤 전문가이기도 하다. 여수마라톤

클럽 창립회원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지난 1999년 5월 17일 평소 여천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통해 알고지내던 10여명의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의지를 모아 결성한 광주전남지역 최초 순수 풀뿌리 마라톤 모임이다. 현재 동호인들은 다수가 여천석유화학공단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지만 사업가, 교육자, 공무원,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목도 도모한다.

류씨가 마라톤을 하면서 가족도 자연스럽게 달리기에도 동참했고 어느새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류상선씨는 “큰딸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신청을 했는데 발을 다쳐서 함께 오지 못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면서 “장모님과 함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씨는 큰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김스를 한 강아지 사진-를 보여주면서 5·18마라톤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류씨는 “그동안 풀코스만 100회를 뛰었다. 마라톤 초반에는 기록에 의미를 두고 뛰었다면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씨 가족들은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며 가족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이 가족의 역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최학자씨는 최고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5·18마라톤대회에서 가뿐히 완주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코스에 변화를 주면서 오르막이 많아 쉽지 않은 코스였으나 최학자씨는 “이 정도는 문제없다”며 지친 기색도 없이 결승선을 통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씨의 건강 비결은 수영과 헬스, 그리고 달리기다. 그녀는 “평소 수영과 헬스로 체력을 다지고 있다. 또 큰아들이 물리치료사여서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많이 준다”고 밝힌 뒤 “많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는 5·18을 기리는 의미가 있어 더 뜻깊고 완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제25회 5·18마라톤대회 최고령 참가자 최학자씨 가족이 코스 완주 뒤 기념촬영에 나섰다. 사위 류상선씨, 큰딸 정미경씨, 최학자씨, 손녀 류민정씨, 둘째딸 정미영씨(왼쪽부터).

### 5·18 마라톤 이모저모

## 5·18 민주묘지 참배는 필수...민주정신 배우는 시민 교육의 장 빛났다

지난 24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25회 5·18마라톤대회 참가자 1,500여명은 달리기 대회 열정이 가득했다. 매년 참가하는 이들은 물론 처음 참가하는 이들도 달리기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또 가족이나 친구, 모임을 통한 참가자들이 많아 서로 단합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흐뭇하게 했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은 평소 대회에서 안면을 틔 맘급 이번 대회에서도 안부를 묻고 기록을 축하하는 등 우정을 다졌다. 처음 댄 10km를 완주한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에게는 박수갈채와 함께 칭찬이 쏟아졌고 대회 전후로 묘지를 참배하고 열사들의 묘소를 둘러보는 이들이 많아 5·18마라톤대회가 단순한 마라톤을 넘어 민주정신을 가슴에 품는 시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했다.

●“5·18 정신으로”...열린태권도 단체 참가 열린태권도 소속 유지원씨와 초등학생 60명이 색조란 티셔츠를 입고 5·18 마라톤에 나서 눈길. 이날 참가자 60명은 5.18km코스 도전을 앞두고 힘찬 구호와 땀뿜기 운동으로 완주의

지를 다져. 최윤재군(7)은 “아빠랑 꼭 5.18km를 끝까지 가고 싶다”며 출발선에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이들을 지도한 최유준 관장(42)은 “아이들에게 5·18 정신을 몸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승선에서 기다려 완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기록. 열린태권도 학생들은 모두 완주에 성공.

#### ●5·18민주묘지 참배 후 인증샷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온 참가자들이 민주주의 문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며 대회를 시작. 참가자들은 배변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에 나섰다. 출발선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낯선 사람끼리도 격려하는 모습이 평화공연 곳곳에서 펼쳐져.

대회장에 일찍 도착한 참가자들은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인근을 둘러봤으며 일부 참여자는 윤상원 열사와 문재하 열사 등 열사들이 묻힌 묘역을 돌며 비문에 새겨진 사연을 읽는 시간을 갖기도.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참

가자들이 참배에 나서 주목. 대회 참가 준비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민주주의 문을 넘어 묘역을 둘러보고 묵념을 하기도. 5·18민주묘지측은 지난해 말 12·3 계엄사태를 겪은 이후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라톤에 참여하면서도 한번 더 발걸음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혀.

#### ●킵복싱 동호인 14명 첫 오월 달리기

광주 문흥동에서 킵복싱 체육관을 운영 중인 이대환 관장(37)은 동호인 14명과 함께 첫 5·18 마라톤에 참가해. 이날 문흥팀 맥 동호원들은 모두 검은색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었으며 서로 응원하며 출발 직전 참가자들끼리 완주의지를 다져.

다른 대회엔 익숙하지만 5·18마라톤은 처음이라는 이 관장은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다 ‘5·18 정신이 담긴 대회는 다 같이 뛰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밝혀. 이 관장은 “처음엔 기록이 목표였지만 다 같이 끝까지 달리는 게 목적이자”고 말했으며 참가자들 모두 완주에 성공.

#### ●남부대 물리치료학과 카이로힐링 테이핑 봉사

남부대 물리치료학과 전공 동아리 ‘카이로힐링’은 마라톤 현장에서 테이핑과 스트레칭으로 참가자들의 몸 상태를 점검해. 황근호 카이로힐링 동아리 회장(3년)은 “수업에서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보고 싶었다. 참가자들이 고맙다며 웃어주니 보람도 컸다”고 말해. 이날 카이로힐링 동아리원 30명은 전원 참석해 부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대회 참가자들이 전문 케어와 테이핑을 받은 뒤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카이로힐링 동아리 학생들은 테이핑을 통해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참가자들이 출발한 뒤에는 결승선에서 완주자들을 응원하고 박수로 환영하기도.

#### ●“기술로 구운 빵 한 조각에 5월의 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마련한 기능경기대회 부스에서는 광주 명장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빵이 제공돼 인기. 대회 참가자들은 기능장이 만든 빵을 나눠 먹으며 마라톤을 준비. 김수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61)은 “5·

18 정신은 나눔과 연대다. 우리는 기술로 그 정신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해. 윤옥공 광주지역본부장(58)은 “기술은 삶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오늘 시민들과 기술이 만나는 풍경이 반가웠다”고 전했다.

#### ●영양 올며 10km 완주 박수갈채

장구RC 이준민군(11)이 10km 코스 결승선을 대성통곡하면서 통과해 시선 집중. 초등학교 4학년인 이군은 이군은 지난해 5.18km를 완주하고 올해 처음으로 10km에 도전했는데 여느때보다 오르막이 많아 완주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가족과 함께 대회에 나선 이군은 다리가 아파 울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착했고, 이를 지켜본 많은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박수와 함께 칭찬을 받아. 이미 완주했던 참가자들은 이군에게 “10km를 완주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정말 훌륭하다”며 칭찬을 쏟아냈고 이에 이군도 점차 웃음을 그쳐. 이군은 “힘들었다”면서도 완주메달을 받아 걸고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훈훈하게 대회를 마무리. 조혜원 기자